

제 134 호

연중 제 12 주일

1975. 6. 22.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목 상□



두려워하지 말라

한 상 갑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 하시오.”(마태오 10 : 28)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 떡판울 벌여 놓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널찍한 대로상에 봉어빵 기계를 놓고 뜨끈뜨끈한 봉어를 만들어 냅니다. 땀벌에 내리쬐는 고추밭에서 후끈후끈 솟아대는 지열을 숨쉬기도 합니다. 그 귀한 피를 거머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굶어진 허리를 두들기며 뜯어낸 산나물을 새벽같이 시내 비스에 싣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릅답고 청정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냉장고를 사고 보석을 얻기 위하여 낚시꾼의 영큼한 대화와 비굴한 웃음을 연신 흘려 매기도 합니다. 그저 돈과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양심이나 정조 따위는 돈만 많이 준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던지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높은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진, 소위 위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대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혼자서 애국자인 양 행세합니다. 자기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 왔노라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놀라자빠질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대고 부패를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당신들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두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마태오 10 : 29-31) 아버지 하느님의 깊은 관심과 돌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육신의 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요 자랑스러운 조상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만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 진주를 목에 두른 돼지를 좋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74

(1) 개회식

□**입당송** 야훼는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의 구원의 방패시니이다. 당신 백성을 구해 주소서. 당신의 기업에 강복주소서, 당신이 그들의 목자 되시고, 영원히 그 왕이 되어 주소서.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에제미아 20 : 10-13)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 손에서 구하였다.

□**창계송** 주여, 당신의 넓은 자비로 나를 도우소서.

내 몸소 능욕을 당하여/부끄러움에 맞을 들 수 없음을, 오로지 님 때문에 아니오니까? 나는 형제들에게도/편 나라사람 내 어머니의 소생에게도/남이 되었다/당신 전당에의 열성에 나는 불타고/님을 목하는 자들의 그 욕이/내게 떨어지지 않았나니까? ◎

□**제2독서** (로마 5 : 12-15 성서 P.346)

은총의 경우와 죄의 경우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요,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 : 2b-33 성서 P.20)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자들의 기도

1. 순교자의 왕이신 주여/신앙의 자유를 잃고 신음을 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6·25의 희생자들에게/당신의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사랑이신 주 예수여/북한의 저 형제들과 우리들/민음과 사랑으로 굳게 맺게 하시어/모든 고난속에서 서로 돕고/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주의 은총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

3. 주여, 장차 이 나라를 젊어진 젊은이 들을 위하여 비오니/항상 절손한 마음과, 참된 사랑 안에서/젊음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장차 내일의 이 나라에 밝은 빛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의 뜻에 맞게 젊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숲 정 이 산 채



상기하자
6·25!

사제의 최대 직무

김 영 구 신부

7월 5일 성 복자 안드레아의 축일을 계기로 우리 대진 신학교에서는 부제님들이 사제단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특히 우리교구에서는 7위 새 신부가 서품되는 영광스런 경사에 즈음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1. 복음 선포 사업이라는 말처럼 신부의 심정에 감격스런 말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형설의 노력의 댓가요, 후일 계속해서 신부가 몸바쳐 성취해야 할 제일가는 직책이다.

복음선포의 의의

복음선포란 하느님의 기본 소식을 설교하며 공포한다는 뜻으로써 설교란 공석에서 외친다, 선포한다는 것이다. 헬라어의 본 뜻은 전령자(傳令者) 즉 왕의 대언자란 뜻이다.

선포자의 선포는 다만 선포할 뿐 아니라 선포하는 장소, 태도까지 일반에게 들려지고 수납되고 감상되어야 함도 의미한다. 그럴려면 그 선포내용을 설명까지 해야 하는데 일반에게 반응시키기 위하여는 친절할 설명이 반듯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만민에게 능률적으로 설득되도록 전파해야 된다. 복음선포란 것은 신부의 할 일중에 신부의 할 일 전반에 걸쳐 끝고루 침투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신부의 생활에 있어서 복음선포가 그 생명의 호흡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새 신자 획득운동

교정적이요 관료주의적인 기성교회에 있어서는 새 신자 획득운동이란 것은 거의 '잊어버린 단어로 되어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 개교회(個教會)를 위해서 부족한 신자수를 보충하는 정도의 것을 그들의 소위 전도운동이라고하는 것이다.

새 신자획득 운동은 복음전도 운동의 가장 전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신부라면 이 일에 부단한 긴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신부는 그 교회밖에 있는 수많은 양들의 구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신부가 그 교회의 통계를 맞추려는 심산으로 이 일을 한다면 사실 통계도 옳게 못 맞출 것이다. 교회밖에 있는 우리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요하는 것 보다 훨씬 긴급한 것이다. 우리교회 통계를 먼저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 통계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통계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신부는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접해야 교회의 활발한 전도운동을 기대할 수 있다.

3. 기성신자의 육성

새 교우획득 운동은 그리스도인 친교 기능이 반밖에 안된다. 나머지 반은 이미 들어온 교우들로 하여금 그 신앙과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 부단히 복음을 제현하도록 육성하는 일이다.

신약성경에서의 이 용어의 원뜻은 「집 짓는 일」이라는 것으로 라틴어의 「개발, 교화 또는 건덕 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선전이란 말이다.

집 짓는 일과 선전하는 일 이것은 서로 안고 도는 복음절이다.

사제의 직무 가운데는 복음선포와 신자 배가운동뿐 아니라 기성교인 육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신심 행사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4. 신심 단체

교회가 생활력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각종 신심 단체가 필요하다. 2백년대에 가까워진 우리 교회는 각종 신심행사를 통하여 신자 배가운동뿐 아니라 이미 믿는 신자들의 꺼지려는 열심을 회생시키는데 각종 신심행사가 꼭 필요했다. 진실로 옳은 설교는 부흥의 활력을 일으키는데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복음선포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신약 성서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과 베드로 세례를 이어 많은 성령들이 부흥사격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침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것이 교회부흥의 통로, 아니 복음선포의 옳고 바른 통로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요 이것이 유일한 복음선포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예언 시사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을 것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했다. 물이란 것은 퍼지면 서도 스며드는 것이다. 스며들기만 하고 퍼지지 않으면 정체된, 자족자만 하느라고 별스럽게 구는 교회가 될뿐이다. 그 반면 퍼지기만 하고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런것은 괴혈상을 드러낼 뿐이다. 단 어떤교회에 출입하는 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복음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5. 복음의 성질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을 퍼치면보도 그것을 스며들게 못하는 폐단이 많다. 교회라는것유다 교회수라고 할 종교를 만들어 내며 그것을 지키고 모지하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나타난 관습적인 경건한 서양은 있으나 그 깊은데까지 새신하지 못한 현상이다.

나는 신조가 유익한줄 잘 안다. 사람은 자기 사유속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강한 인격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조란 것은 하느님과 인간 상호관계를 설명한 이념이다. 만일 복음이 당신안에 들어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전 존재를 거기에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중심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역사 기록은 격심한 비판을 거쳐서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는 저급도 실재하다.

우리는 예수님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며 또한사랑을느낀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인격적 책임을 자인하며, 그의 나라와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며 그의 감화와 인도와 능력을 받아 세상 끝날까지도 충심으로 즐기며, 갈수록 힘을 얻어 온총의 세계에 깊이뿌리를 박고 영생에 이른다.

6. 복음선포의 핵심

우리는 이에 복음선포의 핵심에서 솟아나는 생명적인 원천을 발견한다. 우리는 복음선포를 실제적, 구체적 및 사회적, 문화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알리어 하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도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언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만들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땅의 소금이 되게 하며 인간 사회의 누룩이 되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동 정양소)

□ 양지쪽 □



“응, 내가 가요... 응, 내가 가요...”

한 준 명 (韓俊明) 목사

민족의 비극, 6.25가 일어난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그 아픔이 아스라히 멀어지려는가 했더니만, 아직도 김일성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 교구에서도 고 김현배 주교님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와 신학생이 그 아픔을 지닌채 우리와 선 땅을 달리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때의 아픔을 되새기며 품감하게 순교했던 성직자들의 모습을 한준명 목사의 증언으로 찾아본다.

우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탁자위에 흰 케작이 놓여있고, 그 케작 속에서 밧줄을 꺼내 한사람 한사람 뒷짐을 지워 묶는데, 그 밧줄 길이는 약 2미터, 한사람 한사람 묶은 것을 다시 네사람씩 명태 케작이 한줄에 단단히 연결시킨다. 김신부는 내 우편에서 결박을 당하면서 나와 마주했는데, 눈을 감고 입을 눌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였다.

네 사람씩 다 결박을 끝내고서는 밖으로 내몰아 약 20보마다 인민군들이 늘어선 가운데를 전달식으로 인계시키며 우리를 산으로 몰고갔다. 감방의 탁한 공기만 호홉하다가 원산의 해변 산중 새벽 공기를 마시는 가슴은, 목청에 다쳐오는 살륙도 아랑곳 없다는 듯 그저 상쾌하기만 했다. 산 중턱을 지나 울퉁퉁 곳에 다달았을 때, 총을 든 인민군 한놈이 “개새끼들 들어 가!” 소리와 함께 참호의 입구로 우리를 몰아대었다.

거기에는 우리들보다 앞서 올라온 사람들의 시체가 사살된채 아직도 수족을 꿈틀거리고 있지 아니한가! 그 거리는 4, 5보밖에 되지 않았다. 너무나 돌연적인 광경에 나는 경악조차 느끼지 못하였고, 신경은 제 작용을 중지했다고나 할까.

“이(시체) 위에 올라가 엎드려!” 하는 호령이 들렸다. 누구 하나 반항의 소리도 없이 시체 위에 올라 엎드린다. 우리 네 사람 한줄은 벌써 배경으로 쌓인 시체 위에 올라앉은 셈이 되었다. 이미 간수놈의 단총은 불을 뿜기 시작했다. 간수를 위치에서 보아 좌편 첫사람부터 쏘았다. 그의 후두부를 쏘는 것이 보이는 순간, 그의 안면 전부가 빠져나가는 모양이 보였고, 다음 사람은 후두부가 두 쪽으로 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불과 수삼십 내외로 된 일이었다.

한 목사는 다행히 살아나, 아직 죽지않은 사람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다녔다.)

“물! 물! 아이구 목말라! 물... 줘...”

아직도 적지 아니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이구! 나 좀 살려주! 아이구!...”

간간이 이런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는 소리에 섞여 유독 색다른 목소리로 지면 구석에서 “응, 내가 몰려다 주지, 응 내가 가서 구해주지...”하는 음성이 그 신음소리에 응하여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는가? 나는 이때 이 음성이 분명히 이신부의 음성임을 식별하였다. 생각컨대, 이신부는 최후 운명의 순간까지도 남아 있는 온 정신력을 모아, 주위에서 신음하는 사람 소리를 듣고 그에 대답을 하고 있었던 듯 싶었다. 당신의 몸 역시 끔찍없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자기자신의 일보다도 오직 남의 일만 생각하는 이 기록한 희생정신!

“이신부님! 이신부님!”

“응, 내가 가요... 응, 내가 가요...”

이신부의 입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무의식중에 중얼대는 목소리만이, 그러나 분명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신부의 이런 대답은 약 스무번 이상이나 되풀이 되었을까. 마침내 이신부의 음성도 차츰 기력을 잃어가더니만 그만 그쳤다.

* 주 : 본문의 김신부는 김봉식(金鳳植, 박오로) 신부님이며, 이신부는 이광재(李光在, 디모테오) 신부님이다.

이 두분은 1950년 10월 9일에 공산 도배들에게 피살되어, 원산 천주교회 뒷산에 안장되었다.

요십이 (100) 김병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5013
김원준(야교버)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③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빌 중앙시장통
전화 ⑤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테레사
소방서 복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북한 동포와 남북인사 및 6. 25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 (오늘)
6. 25를 맞아 북한 처하의 동포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교구청 공문 제 75-16호 참조)
2. 사제 피정(6월 27일-7월 4일 카톨릭 센터)
3. 다음 주일은 교황 주일(평신도의 강론과 특별 헌금 있음)
4. 사제 서품 받으실 분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① 때: 7월 5일(토) 11시, ② 곳: 전동성당, ③ 주례: 김 재덕 주교
④ 서품자: 박 중신(시몬, 한얼), 변 선배(라우렌시오, 전동), 김 동준(야고버, 주현동) 강 인찬(도민고, 서학동), 이 태주(알로이시오, 여수), 한 봉섭(시몬, 주류), 엄 기봉(베드로, 교창)
5. 전동 성당 건립 회갑 기념 글짓기, 그리기 백일장 (다음 주일 오후 2시, 전동 성당)
교구내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 바람
6. 노송동 성당 신축 기금, 봉헌금 약속을 속히 완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사도 회장 김 영 진

1. 유아 세례 집행: 매월 마지막 금요일 10시 어머니 미사후
2. 축복본당 신부님 영명: 6월 29일 신부님의 영명 축하파티에 뜻이 있으신분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바람
3. 부녀부 하기 활동 일환으로 그림엽서 판매 여러분의 가정용 방문키로 하였어오니 적극 요망
4. 다음주는 교황 주일: 특별헌금 있어오니 교황 성하를 위하여 성의를 다 하시길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본당 신부님 은퇴: (7월 5일)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다음주는 교황 주일: 특별헌금 있음
3. 부녀부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 성미: 1.7달 누계 365.7달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7월 5일 우리 본당 새 사제 탄생*
7월 6일 상관 성당에서 11시 첫미사와 아울러 축하식을 거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협력을 요망합니다.
2. 오늘 본당 신부님은 김 환철(전동) 신부님이십니다
3. 오늘 예비자 교리, 중·고 교리 없음
4. 신용조합 이사회 있음
5. 대문과 담장을 교우분들의 협력으로 무사히 마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회-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교무금 납부하여 본당 운영 합니다.
2. 성 안또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성당: 54,000원 한 중탁: 50,000원
안 또니카: 10,000원 기타: 4,500원
누계: 118,500원 누계: 3,523,447원
◎신축 성미: 2달 누계: 264달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이 린 재

1. 61주년 성당 건립 대지 헌금 신임 요망
2. 주일학생 미사: 주일 오후 4시(3~4시까지 교리 성가 연습)
3. 6월은 봉헌금 완납의 달
신입하신 봉헌금을 속히 완납 요망
4. 신용 협동 조합 적금 계약과 동시 적금 대출 실시하여 전기 제품(T.V, 냉장고, 전축, 세탁기등) 구입할 수 있어오니 희망자는 신청 바랍니다.
◎ 성미: 1달 2달 누계 12달 3달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중 환

1. 교구 사제 피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6. 27~7. 4일까지
2. 서품 받으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칩시다.
3. 신자 예비자 특별 교리: (토) 8시30분
4. 전동 성당 회갑 기념: 성당 기금 및 노송동 성당 기금 모금에 협력합니다.
◎ 에평회, 성미: <누계> 3홉, 190원
누계: 13.2홉, 4,430원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최 안당(병례) 남부시장 용정상회 ② 5418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창 진부 신배 인정	신용조합 월례회	2,67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동	부인회, 요셉회	34,410원
		돌담 도서실 회원 총회	16,710원			빌링스법 가족 계획 강의	39,385원
		학생회 쉼 강습	10,560원				
제 2 지구	대 문 월명 중동 환 열	꾸리아, 청년회	35,105원	제 4 지구	중 앙 노송동 진자 복서 학동 전 동	부녀부 하기 활동 그림엽서 판매	53,356원
		까리따소 월례회	22,490원			교무금 납부요망	17,660원
		새 신부를 위한 9일기도	13,090원			새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1,300원
		꾸리아	10,115원			본당신부님 은퇴에 대한 협조요망	15,75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6. 25 희생자를 위한 기도	2,730원	제 5 지구	남 부 주 장 진 수	신용조합 이사회	13,765원
		성우회 월례회	11,850원			61주년 성당 건립 헌금 신임 요망	48,617원
		공소별 의사 신입에 대해 감사	1,750원				
						노래는 즐거워 참석 요망	13,150원